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 개최

- 추경(7,000억원) 신속 집행 및 약정속도 제고를 위한 금융권 협의
- 신속한 협약개정 등을 통해 9월중 시행 추진

I.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25.7.14.(월)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소상공인 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 입장에서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7.4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금번 추경에 반영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중 하나인 새출발기금 확대방안 등에 대해 협약기관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 ① 장기연체채권 소각프로그램(4천억원) → 7.11일 전문가 간담회 既 개최
② 새출발기금 확대(7천억원), ③ 성신회복프로그램(3.5천억원, 중기부)

간담회에는 협약기관뿐만 아니라 새출발기금 일선에서 채무자와 직접 소통하고 있는 상담사들도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 (일시/장소) '25.7.14.(월) 15:00~16:3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새출발기금 상담사(3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협중앙회, 신보중앙회, 경기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 (논의) 새출발기금 현장 건의사항 및 협약개정 방향

II. 주요 논의사항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은 새출발기금이 '22.10월 출범한 이래 '25.6월말까지 약 13.7만명(22.1조원)의 신청을 받아 약 8.0만명의 6.5조원의 채무를 조정하는 등 대표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 특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3,344개의 협약금융기관*들 협조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하였다.

* 은행업권(20개), 저축은행업권(79개), 여산보험캐피탈(69개), 상호금융업권(3,138), 보증업권(21개) 등

추경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은 채무자들이 최대한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며, 관련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협약개정 등 협약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새출발기금 확대방안 : 추경 7,000억원 반영

① 저소득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 대상 :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
- 내용 : 원금감면을 확대 (60~80% → 90%), 분할상환 확대 (10년 → 20년)

② 지원대상 확대

- (현재) '20.4월~'24.11월 사업영위자 → (개선) '20.4월~'25.6월 사업영위자까지 확대

회의에 참석한 상담사들은 코로나19 때보다 지금 어렵다고 호소하는 자영업자 분들이 더 많다고 느낀다며, 그 간의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한 사례를 공유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최현애 상담사는 협약기관이 확대되어 채무조정시 제외되는 채권이 많이 줄었다고 언급하며, '24.9월 제도개선*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이 가능하게 되면서 소급 적용을 위해 종전에 상담받으셨던 채무자분께 안내드렸던 사례를 소개하였다.

당시 채무자는 회생·파산까지 알아보시던 중에 잊지 않고 연락을 주어 고맙고 희망이 생겼다고 기뻐하셨는데, 이번에도 제도개선을 통해 소급 적용 받으실 분들을 생각하니 보람을 느낀다고 언급하였다.

* '22.8.29일 이후에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강진걸 상담사는 대부분의 신청자분들은 한계에 처하신 분들인 만큼 조금의 도움에도 희망을 느끼신다며, 월 200만원의 이자를 납부하시던 분이 중개형 채무조정으로 월상환금액이 150만원으로 줄어들자 삶에 희망이 생겼다며 감사를 표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상담사들은 최근 주요 민원사항으로 약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한 채무자는 채무조정과 함께 가족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중이어서 빨리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채무조정 절차 단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된 방안 외에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의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으로는 ①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유인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력확충 등 제도운영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중개형 채무조정의 업권별 부동산의 회신율('25.6월)

은행: 61.4% 보험: 3.3% 여신금융: 86.2% 저축은행: 60.5% 상호금융업권: 20.8% 보증기관: 85.7%

또한, 참석기관들은 이번 추경을 통한 저소득 취약차주 지원강화의 연장선상에서 ②연체 90일 이하의 차주를 지원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에서 사회취약계층 등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채무자가 부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는 그 누구도 아닌 채권금융기관이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채권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③새출발기금 제도를 안내하고 홍보해주기를 요청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추경을 통해 추가 출자를 받는 만큼, 채무조정 신청자들이 정부 정책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원활한 채권매입, 조속한 채무조정 약정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며, 신용회복위원회는 중개형 채무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동의율 개선 등 협약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하였다.

참석자들은 새출발기금의 추가적 제도개선의 취지에 공감하며, 협약기관들도 부동의율 개선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III. 향후 계획

추경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과 오늘 논의된 사항들은 협약기관들간 실무협의 및 협약개정 등을 거쳐 9월중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향후 한달동안 ‘새출발기금 집중 의견수렴 기간’을 운영하여 현장간담회(3회), 협약기관 업권별 간담회, 상담사로 구성된 정책제안 TF, 온라인 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 발굴·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애로는 즉시 해결하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9월중에 개선·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생업으로 바빠서 제도를 일일이 알아보기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위한 맞춤형 홍보를 시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직접 타겟팅하여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로페이 가맹점주(약 150만명)에게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관련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32)에 따라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제도 안내시 새출발기금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 '22.12~'24.10월중 5회 약 400백만건 알림톡 발송 → 전월대비 상담건수 80% 신청자수 100% 증가

※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온라인 신청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신청
- ※ 문의 : 1660-1378(새출발기금), 1600-5500(신용회복위원회)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책임자	과 장	양윤영	(02-2100-2920)
		담당자	사무관	박보라	(02-2100-2921)
			사무관	문성배	(02-2100-2936)
담당 부서 <공동>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인수운영처	책임자	처 장	양근영	(051-794-3770)
		담당자	팀 장	민준필	(051-794-3771)
담당 부서 <공동>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부	책임자	부 장	박성우	(02-750-1131)
		담당자	팀 장	고동현	(02-750-1122)

참고 1

새출발기금 제도 설명

지원대상

- '20.4월~'24.11월중 영위한 부실·부실우려 소상공인·자영업자
 - * (부실) 금융회사 대출 중 1개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 (부실우려) 3개월 미만 연체,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
- √ '20.4월~'25.6월까지 사업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확대 예정**

대상대출

-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의 총 15억원 이하의 모든 대출
 - * 단, 총채무액이 담보·보증 10억원, 무담보 5억원 이하

지원내용

- 신청 즉시 추심중단
- 부실차주 :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해 60~80% 원금 감면
상환기간 거치기간(0~12개월) 부여 후 분할상환(1~10년)
- 부실우려차주 : 이자조정 연체기간에 따라 이자율 차등 조정
상환기간 거치기간(0~12개월) 부여 후 분할상환(1~10년)
- * 담보대출은 원금조정 없이 이자 및 상환기간조정 지원 (0~36개월 거치, 1~20년 분할상환)
- √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부실차주는 원금감면을 최대 90%, 거치기간 최대 3년, 분할상환 최대 20년으로 **확대 예정**

신청방법

- 부실차주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온라인 신청
- 부실우려차주 :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신청
- ※ 문의 : 1660-1378(새출발기금), 1600-5500(신용회복위원회)

추가혜택

- 기금에서 인정하는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시 원금 추가 감면(최대 10%p)
- 채무조정 약정 후, 1년간 성실상환시 채무조정정보(공공정보) 즉시 해제
 - * 폐업자의 경우,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재창업사업화 이수후 취업·창업 성공시 즉시 공공정보 해제

대출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동네 사장님을 위해
정부가 **'새출발기금'**을 출범하였습니다!

새출발기금의 특징



지원대상 확인 방법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자 확인은 별도 서류 없이
새출발기금.kr에 접속 후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편리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휴대폰 본인 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법인사업자 법인 범용 공공인증서

잠깐!

새출발기금은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예외) 부실우려차주가 약정했던 채무조정이 미납 등의 사유로
실효되는 경우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진행하며,
당시에 포함하지 않았던 채무도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새출발기금이 함께합니다!



온라인 접수(24시간 신청 가능)



- 01 홈페이지 접속 → 02 본인인증
- 04 신청자격 확인 ← 03 정보제공 동의
- 05 채무내역 조회(카카오 또는 SMS 통보)
- 06 추가정보 작성 → 07 신청접수 완료

※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이 완료됩니다.



홈페이지 안내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kr

신용회복위원회

www.ccrs.or.kr



전화 및 방문상담 창구

한국자산관리공사

1660-1378

전국 19개
지역본부 및 지사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주의

새출발기금은 대출상품이 아니며, 수수료 등을 사유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힘드셨죠?” 그 한마디가 한 청년을 살렸습니다.

2019년, 사회생활 등을 통해 모은 자금으로 작은 가게를 창업하였습니다. 그 해 겨울부터 예기치 못한 코로나 팬데믹은 저에게 큰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매출이 급격히 줄고, 길거리엔 사람들의 발걸음이 사라졌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접 배달을 하고 가족 모두가 가게에 매달렸습니다. 설·추석을 제외하고 매일 가게를 지켰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동안 배달대행·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하며, 코로나가 종식되길 희망하며 2년을 버텼으나, 남은 것은 망가진 몸, 폐업한 가게, 그리고 ‘빚’ 뿐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세상을 원망하고, 창업을 한 내 자신을 책망하고 또 책망했습니다.

그러던 중 뉴스에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알았고, 마지막 희망이라는 심정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한 청년이 용기내서 전화한 콜센터 상담원의 말은 ‘살아라, 아직 할 수 있다.’ 라는 위로였고, 직접 대면한 상담원분의 “힘드셨죠?” 라는 한마디는 삶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을 살리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힘들게 보냈던 그 시절에 나라의 세금으로 빚을 감면받아 감사하면서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누군가 힘들 때 나라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아들 셋 엄마의 새출발은 현재 진행형

남편이 쓰러진 날, 아이들은 초등 5학년, 1학년,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1년 간에 병간호 동안 빚은 쌓였고, 가족을 위해 생계를 찾아 나서야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가족과 떨어져 타지에서 1년 동안 남자들도 힘들다는 공구일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운 기술로 모든 학교와 교육청을 다니면서 제품홍보, 그라핀팅기술을 선보이며 인지도를 쌓았고 19년 사업자까지 냈습니다. 그러나 20년 코로나로 ‘외부인 출입금지’가 붙은 교육청과 학교들이 늘어나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오라는 전화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흐르면서, 기다림은 체념으로 바뀌었고, 제 영업담당자들도 바뀌었습니다. 빚은 늘었으며 결국 23년 2월 폐업하였습니다.

폐업과 동시에 밀어닥치는 미납고지서들과 연체 안내 문자는 지친 저를 더욱 사지로 내몰았고, 현실을 외면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려오는 추심 전화들은 뼈저리게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TV새출발기금 뉴스를 보게 되었고, 상담을 받고 채무조정을 통해 75% 감면을 받았습니다.

추심만 없어도 살겠다 생각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던 삶에서, 이젠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문득 코로나 시기에 배워둔 한식 조리사 교육이 생각났고, 구직 신청을 하여 취업에도 성공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으로 추가 10%도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근한지 1년, 남편도 건강을 찾았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신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해서 빚을 모두 갚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참고 4

새출발기금 부동의 현황 ('25.6월말 기준)*

※ 상세내용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 공시중

□ 새출발기금 부동의 현황(단위: 억원, 건)

중개형 채무조정 신청		채권금융회사 동의		채권금융회사 부동의	
금액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계좌수
54,946 [100%]	425,344 [100%]	20,160 [36.7%]	145,512 [34.2%]	34,786 [63.3%]	279,832 [65.8%]

□ 업권별 부동의 현황(단위 : 계좌수, %)

구 분	기관수	동의요청	부동의회신	부동의 회신율
은행	19	146,655	90,043	61.4%
보험	16	5,298	174	3.3%
여신금융	41	189,019	162,928	86.2%
저축은행	56	40,886	24,752	60.5%
상호금융	1,709	8,034	1,675	20.8%
보증기관*	22	67,596	57,946	85.7%
기타기관**	13	35,452	260	0.7%
합 계	1,854	425,344	279,832	65.8%

* 원채권기관 부동의 후 대위변제한 보증기관 중개형 채무조정 참여 동의 여부
(보증기관 대위변제 후 중개형 채무조정 동의여부는 동의현황 합계에서 제외)

**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미소금융재단 등 13개 기관